



⊗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확정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진식 산자·박호근 과기·진대제 정통부장관 등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16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갖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 이같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10대 성장동력 산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이다.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0년 후인 2012년에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2519억달러(2003년 721억달러)에 이르고, 고용도 241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자 297명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297명을 창업보육사업자로 선정, 266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D)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창업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인에게 1억원 안에서 창업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자금을 무이자 및 무담보로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전국의 8개 테크노파크 및 166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사업공간과 연구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작년까지 1058억원을 투입해 신기술사업자 1237명을 발굴·지원했으며, 올해는 신청자 877명중 297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 회계연구원, 중소·벤처 CEO 무료 회계교육

한국회계연구원(원장 정기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무료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구미, 광주, 인천, 수원,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총 25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3일간 이뤄지며 교육내용은 회계 국제화와 재무담당자의 전략, 재무·세무·관리회계 등이다. 세부 교육일정과 교육신청은 회계연구원인터넷 홈페이지(www.kasb.or.kr)를 참조하면 된다.

⊗ 도르트문트시 투자유치단 방한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독일 도르트문트시 투자유치단은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15일)과 대구(17일)에서 두 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

도르트문트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리아비즈니스 공동으로 주관하고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벤처신문 등의 후원아래 진행되는 이번 투자유치회에서 도르트문트시는 대구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고 IT·BT관련 기업들과의 상호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단을 파견한 독일의 도르트문트는 IT 및 하이테크 관련 산업의 최대 발전 도시다. 또한, 독일 최대 IT, 컴퓨터 공학관련 학과를 자랑하는 도르트문트 대학교는 IT업체들과 기술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센터를 비롯한 여러 벤처타운과 각종 연구기관들은 도르트문트의 해당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도르트문트의 투자환경을 소개한 후 개별상담회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도르트문트에 지사 설립시 도르트문트시에서 제공하는 Welcome Package를 활용하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조흥식 (02-792-2430, Fax: 02-796-2419, E-mail : infoskorea@hanafos.com)